

간호대학생의 학업실패내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정수경*

¹우송대학교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Effects of Nursing Student's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Academic Achievement

Su Kyoung Chung¹*

¹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Health and Welfare, Woosong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간호대학생의 학업실패내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학업실패내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D시에 있는 4년제 간호대학생 198명을 대상으로 2012년 8월27일부터 9월17일까지 조사하였으며, 기술통계,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학업성취도는 학업실패내성($r=.184, p<.01$)과 학업적 자기효능감($r=.282, p<.001$)과 긍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회귀분석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7.5%($F=16.905, p<.001$)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학업실패내성의 행동 하위영역은 학업성취도에 8.0%의 설명력을 나타내었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자기조절 효능감 하위영역은 15.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취업 후에 직무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대학생활 동안 학업실패내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나가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of academic failure tolera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The data was obtained from August 27 to September 17. The participants were 198 students in a university in D city. The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all the variables. The factor that significantly affected academic achievement was academic self-efficacy, which explained 7.5% of the variances. The subdomain of the academic failure tolerance affecting academic achievement was found to be the behavior, which explained 8.0% of variances. The subdomains of academic self-efficacy affecting the academic achievement was the self-regulatory efficacy. This factor explained 15.4% of the variance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for the learning achievement and working performance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Academic Failure Tolerance,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이전의 공교육과는 다르게 자신이 선택한 학교와 학과에서 미래를 준비하여 성인으로 성장하는 기간이다[1]. 대학생들이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

고 있는 부분의 하나는 학업성취도이며[2] 실제로 학업 문제를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위해 대학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3] 을 볼 때 대학생에게 학업문제는 주요 관심사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간호전문직에 대한 선호도 증가와 취업의 확실성으로 인하여 비

*Corresponding Author : Su Kyoung Chung(Woosong Univ.)

Tel: +82-10-2927-9253 email: skyoung1@wsu.ac.kr

Received October 2, 2014

Revised (1st November 3, 2014, November 14, 2014)

Accepted December 11, 2014

교적 우수한 고교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간호학과에 입학하고 있다. 전문직 간호사로서 인간과 사회,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성찰하여 교양인과 전문인으로서의 간호사의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전공교과목 외에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교과목까지 다양하게 이수해야 한다[4]. 또한 타 학문과 달리 대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국가고시를 합격해야 하는 전공과목에 대한 많은 학업적 부담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감은 전공에 대한 회의 및 학업 포기와도 연결될 수 있게 되는데 교육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실패경험 즉, 학업적 실패경험은 차후 과제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5]. 그러나 실패가 반드시 부정적 측면만을 지닌 것은 아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게 되며, 이렇게 실패경험에 대해 건설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성을 실패내성(failure tolerance)이라고 한다[6]. 실패내성에 포함된 3가지 하위영역은 실패에 대한 감정적 반응과 행동적 반응 외에 개인의 일반적인 과제난이도에 대한 선호수준을 포함하여 실패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기피하려는 사람은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보다 쉬운 과제를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높은 내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전제한다[7]. 반복적 학업실패는 학습자에게 부정적 반응을 나타나게 되므로 학생들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사회에 나가기 전에 교정할 필요가 있다. 건설적으로 실패를 받아들이는 학습자는 학교와 직장 모두에서 높은 성과를 얻을 것으로 예측한다. 학업성취도와 직무성과와의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학업실패내성과 같이 실패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개인 고유의 특성이 학업성취도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8]. 최근 의료 환경의 최첨단 및 환자요구도 증가에 따라 신규간호사들의 업무부적응 문제로 여러 병원에서 이들의 적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규간호사들의 직무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들이 직업사회에 나오기 전 이들의 건설적 실패내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인다면 직무성과를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간호학과 학생들이 미래 임상현장에서 긍정적 직무성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의 학업실패에 대하여 건설적으로 반응하는 실패내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학습자가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해 보이는 기대와 신념 즉,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지식과 수행을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로 연구되어 왔으며, 학습자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8].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수행상황에서 어떤 수준의 난이도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과제난이도와 어떤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자기조절 효능감 및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인 자신감 등 3개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9,10].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수행 및 성취수준을 잘 예측한다면 이와 다르게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학업상황 전반에 걸친 수행을 예측하고 교육적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문적 수행 및 성취수준을 보다 잘 예측하기 위한 개념이다[10]. 그러므로 학업실패내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은 간호학과 학생들의 학업적 적응과 학습 유지를 위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학업실패내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12], 대학생을 상대로 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대학생을 상대로 연구는 의과대학생의 학업실패내성과 성취목표지향성에 관한 연구와 직업을 가진 사이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패내성과 학업성취도 및 직무성과와 연결하여 시도한 연구[13]가 있다.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실패내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 중 특히, 학업실패내성이 대학생의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Kim의 연구[12]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는 .17의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하였으며, Hwa, Kim과 Whan의 연구[14]에서도 두 변수 간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학업실패내성과 개인의 학업상황 전반에 걸친 수행 및 성취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와 상관관계가 규명된다면 학업실패내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업실패내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략 구축과 간호대학생의 향후 간호사로서의 직무능력 향상 방안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학업실패내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학업실패내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일 간호대학생의 학업실패내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학업실패내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며 이와 같은 연구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간호대학생의 학업실패내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는 어떠한가?
- 2) 학업실패내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은 군과 높은 군의 학업성취도는 차이가 있는가?
- 3) 간호대학생의 학업실패내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 4)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1.2 용어의 정의

1.2.1 학업실패내성

실패내성이란 실패 결과에 대해서 비교적 건설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경향을 말하며[6], 학업실패내성이란 학습자가 학습 실패 결과에 대해 비교적 건설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경향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Kim[5]이 개발한 과제선호, 감정, 행동 등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학업실패내성 측정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1.2.2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학습자가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해 보이는 기대나 신념을 말하며[5], 본 연구에서는 과제난이도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등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5]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1.2.3 학업성취도

고등교육의 성과로서 학업성취도는 대학의 교육이념과 목표가 교육과정의 경험을 통하여 대학생에 구체화되는 결과를 의미한다[15]. 본 연구에서 학업성취도는 직전

학기 학점을 말한다. 간호학과는 교양인과 전문인으로서 간호사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교양 및 전공 교과목, 필수 및 선택 교과목을 균형있게 편성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간호교육인증 기준[4]에 근거하여 균형있게 이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교과목 이수의 결과인 학점을 가능한 정확히 보고하기 위해 직전 학기 학점을 자가 보고하도록 하여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실패내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대전소재 4년제 일 대학교에 다니는 간호대학생 중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배부된 220부의 설문지중 회수된 198부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Cohen's G-power calculation 방식, Version 3.1.7 [16]에 의하면 상관관계 분석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중간 정도(.3)에서 검정력 .80을 유지하기 위한 표본의 수는 82명, 회귀분석시 예측 변수 최대 6개인 경우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중간 정도 (.15)에서 검정력 .80을 유지하기 위한 표본의 수는 146명으로 계산되어 각 집단의 대상자수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 연구도구

2.3.1 학업실패내성

본 연구에서는 Kim[5]이 개발한 학업실패내성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과제선호, 감정, 행동 등 3개의 하위영역을 포함하는 총 18개의 문항으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실패내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에 대한 반응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부정적 문항은 역채점 후 사용되었다. 개발당시 하위척도의 Chronbach α 값은 .68-.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hronbach α 값은 .84였고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과제선호영역 .84, 자기조절 효능감영역 .87 및 자신감영역 .69이었다.

2.3.2 학업적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Kim[5]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로 과제난이도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등의 3개의 하위영역을 포함하는 26개 문항으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에 대한 반응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부정적 문항은 역채점 후 사용되었다. 개발당시 하위 척도의 Chronbach α 값은 .77-.87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Chronbach α 값은 .83이었고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과제선호영역 .82, 감정영역 .80 및 행동영역 .80이었다.

2.3.3 학업성취도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는 직전학기 학점을 자가 보고하게 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소속된 대학의 간호학과 이수하는 한국간호교육인증평가원의 기준에 부합하였으며, 실습과목을 포함한 모든 과목 성적은 A 30% 및 B 40% 이내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였으며 D지역에 있는 일개 4년제 대학교를 임의 표출하여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방법은 자기보고식 설문방식으로서 연구보조원 4인에게 자료 수집시 주의사항과 절차에 대하여 교육한 후,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대상자에게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작성하게 하여 이를 회수하였다. 자료수집 전에 연구보조원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의 문항과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대상자 접근에 대한 간단한 훈련 과정을 거침으로써 자료수집절차 상의 오차를 줄이도록 하였다. 배부된 총 220부의 설문지 중에서 주요 변수인 직전학기 학점을 기입하지 않는 등의 설문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98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1 vers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를 실시하였고 학업실패내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과 낮은 군의 주요 변수간의 차이는 t-test로 검증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

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증하였다.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별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는 대학생 총 198명이었다.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0.0±1.46세이었으며 18세부터 28세의 대학생이 포함되었다. 간호학과의 특성상 남학생은 14명(7.1%), 여학생은 184명(92.9%)이 대부분이었다. 고등학교는 이과계 졸업이 120명(60.6%), 문과계 졸업이 76명(38.4%), 예체능계와 검정고시 각 1명(1.0%)으로 이과계열 졸업생이 많았다. 출신 지역으로는 경기 지역 48명(24.2%), 대전지역이 40명(20.2%), 서울 32명(16.2%), 전북 11명(5.6%) 순이었다. 이들이 가지는 전공 만족도는 평균 3.98점(±0.84)으로 비교적 높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 = 198)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Age(years)	18-19	88(44.4)	20.0±1.46
	20-24	107(54.0)	
	25-29	3(1.5)	
Gender	male	14(7.1)	
	Female	184(92.9)	
High school affiliation	Natural sciences or engineering	120(60.6)	
	Humanities	76(38.4)	
	Others	2(1.0)	
High school district	Gyeonggi	48(24.2)	
	Daejeon	40(20.2)	
	Seoul	32(16.2)	
	Jenbuk	11(5.6)	
	Busan	9(4.5)	
	Gyeongbuk	9(4.5)	
	Incheon	7(3.5)	
	Others	42(21.2)	
Satisfaction on major	No answer	1(0.5)	3.98±0.84
	very dissatisfied	1(0.5)	
	Dissatisfied	6(3.0)	
	Common	38(19.2)	
	Satisfied	98(49.5)	
	Very satisfied	54(27.3)	

3.2 일 간호대학생의 학업실패내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

간호대학생의 학업실패내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학업실패내성의 문항별 점수는 1.9점부터 4.3점으로 평균 3.12±0.40점이었으며, 하위영역 문항별 평균점수는 과제번호는 2.97±0.56점, 감정은 3.04±0.74점이었고, 행동은 3.30±0.49점으로 하위영역에서 행동영역이 가장 높았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2.0점부터 4.5점이었으며 평균 3.23±0.40점이었다.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보면, 먼저 과제난이도번호는 3.04±0.59점, 자기조절 효능감은 3.32±0.48점, 자신감은 3.34±0.66점으로 하위영역에서 자신감영역이 가장 높았다. 학업성취도는 직전학기 학점으로 2.06점부터 4.5점까지 분포되었으며 평균 3.49±0.45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academic failure tolera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N=198)

Subdivision	Min	Max	Item mean±SD
Academic failure tolerance	1.9	4.3	3.12±0.40
Task preference	1.50	4.38	2.97±0.56
Feeling	1.25	5.00	3.04±0.74
Behavior	2.25	4.63	3.30±0.49
Academic self-efficacy	2.0	4.5	3.23±0.40
Task difficulty preference	1.25	4.38	3.04±0.59
Self-regulatory efficacy	2.10	4.50	3.32±0.48
Self-confidence	1.63	5.00	3.34±0.66
Academic achievement	2.06	4.50	3.49±0.45

3.3 간호대학생의 학업실패내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학업실패내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주요 변수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Table 3]. 먼저 학업실패내성 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비교시 일반적 특성인 나이와 전공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학업성취도($t=-2.388, p=.018$)에서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t=-8.789, p<.001$)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차이집단 간에 있어서 나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전공만족도($t=-3.189, p=.002$) 및 학업성취도($t=-2.844, p=.005$), 학업실패내성($t=-7.876,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3] Group differences of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N=198)

	Mean±SD		t	p
	Low (n=81)	High (n=81)		
Academic failure tolerance				
Age	20.14±1.54	19.91±1.36	1.117	.265
Satisfaction on major	3.87±0.82	4.10±0.86	-1.941	.054
Academic achievement	3.39±0.43	3.56±0.47	-2.388	.018
Academic self-efficacy	78.80±9.37	89.79±8.17	-8.789	.000
Academic self-efficacy				
Age	19.88±1.20	20.16±1.66	-1.324	.187
Satisfaction on major	3.79±0.83	4.17±0.82	-3.189	.002
Academic achievement	3.40±0.45	3.58±0.44	-2.844	.005
Academic failure tolerance	69.73±8.59	79.04±8.05	-7.876	.000

3.4 간호대학생의 학업실패내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학업실패내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학업실패내성은 학업적 자기효능감($r=.655, p<.001$)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영역($p<.001$) 및 학업성취도($r=.184,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실패내성($r=.665, p<.001$)과 모든 하위영역($p<.001$) 및 학업성취도($r=.282,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각각의 하위영역에서 보면 학업실패내성의 하위영역중 행동($r=.292, p<.001$)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하위영역의 과제난이도번호($r=.141, p=.048$) 하위영역과 자기조절 효능감($r=.398, p<.001$) 하위영역에서만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failure tolera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Academic failure tolerance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r	p	r	p	r	p
Academic failure tolerance	1		.655	.000	.184	.010
Task preference	.643	.000	.471	.000	.091	.202
Feeling	.754	.000	.372	.000	.034	.631
Behavior	.557	.000	.492	.000	.292	.000
Academic self-efficacy	.655	.000	1		.282	.000
Task difficulty preference	.572	.000	.669	.000	.141	.048
Self-regulatory efficacy	.357	.000	.724	.000	.398	.000
Self-confidence	.443	.000	.698	.000	.064	.386

3.5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학업성취도의 변화량에 대한 예측을 위해 학업실패내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중 나이, 전공만족도 등은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들 변수는 모두 제거되었다.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한 공차한계가 최대 .571, VIF 1.750으로서 독립변수 간의 상관이 문제가 될 정도로 높지 않았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변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F=16.905, p<.001$)이었으며 7.5%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Table 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academic achievement (N=198)

	B	S.E	β	Adj. R ²	t	p	F(p)
const.	2.461	.253			9.712	<.001	16.905 (p<.001)
Academic failure tolerance	.012	.003	.282	.075	4.112	<.001	

학업실패내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주요 변수의 하위영역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분석결과 는 다음과 같다. 학업실패내성은 3개의 하위영역 중 행동영역만이 학업성취도에 8.0%의 설명력을 나타내었고 ($F=18.203, p<.001$),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3개의 하위영역 중 자기조절 효능감 하위영역만이 15.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F=36.907, p<.001$).

[Table 6] Influencing factors of subdomains of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academic achievement (N=198)

Variables		B	S.E	β	t	p
Academic failure tolerance	const.	2.602	.211		12.311	<.001
	Behavior	.270	.063	.292	4.267	<.001
Adj. R ² =.080, F=18.203, p<.001						
Academic self-efficacy	const.	2.252	.207		10.892	<.001
	Self-regulatory efficacy	.375	.062	.398	6.075	<.001
Adj. R ² =.154, F=36.907, p<.001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실패내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일반적 특성에서 나이는 학업실패내성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Hwang, Jang과 Yoo[17]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실패내성이 높았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반면, Kim과 Joo[7]의 연구결과에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학업실패내성이 낮게 나타났다.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학업실패내성이 중학생보다 부정적 정서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나이가 증가될수록 실패경험이 많아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는 대처방안이나 내성을 발달시킬 기회가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학업실패내성에서 나이는 주요 변인중의 하나 일 수 있으나 대학생이라는 집단 내에서 비교하였으므로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집단과 비교하는 경우 발달과정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업실패내성은 개인의 학업실패경험이 발달과정상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에 대한 안정적 특성이이기는 하지만, 대학생에게 있어 학년별 차이가 있는지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수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주요 일반적 특성 변인중 하나인 성별의 차이는 본 간호학과와 특성상 비교하기는 제한점이 있으나 앞으로 남자 간호대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상자집단을 확대하여 추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실패내성의 평균 문항별 점수는 3.12 ±0.40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았으며 하위영역에서 행동영역이 3.30±0.49점으로 다른 하위영역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학업실패내성의 하위영역은 개인이 실패경험 후에 보이는 감정적 반응영역과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계획하고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지에 대한 행동영역 및 과제난이도에 대해 보이는 인지적 행동적 측면을 나타낸다[3]. 따라서 행동영역이 높다는 것은 비교적 내신 성적이 우수한 간호학과 학생들이 학업실패경험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행동을 취한다는 점에서 우수학생들의 행동요인이 일반학생들 보다 높았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18]. 이는 최상위권 대학과 특수 계열 학생을 표집에서 제외한 대학생을 상대로 조사한 학업실패내성 하위영역에서도 행동영역이 다른 하위영역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3]와도 유사하다. 실패경험 후 실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려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대처하려는 대학생의 발달적 특성과 더불어 우수학생들의 성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학적 측면에서 학업실패 상황에서 부정적 감정 반응을 낮출 수 있고 과제수준에 대한 내성을 높일 수 있는 교과외 프로그램이나 교수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평균 문항별 점수는 보통보다 약간 높았는데 하위영역에서 과제난이도선호가 가장 낮았다. Bandura[11]는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어떠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념으로 정의하고, 이 개념을 과제난이도선호, 자기효능감 및 자신감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이에 근거하여 학업적 상황에서 세부적인 영역별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도구로 개발하였는데[5] 하부영역에서 과제난이도선호영역이 가지는 의미는 학업적 효능감이 높은 경우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 과제를 선택하는 측면에서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으로 판단된다. Wang & Newlin[19]은 온라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습 내용이나 기술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학생들의 수행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학습자들이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도록 교수자의 노력이 요구되며 학습 초기에 학습자들이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학습을 하도록 격려하는 피드백을 자주 제공할 필요가 있다[20]. 특히 간호대학생의 경우 전공 이론 교과목만이 아니라 임상 실습교과목 및 졸업 전 면허취득이라는 부담감까지 가지고 있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하여 간호대학생들에게 더 실질적인 교과와 활동이나 교수지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학업실패내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의 학업실패내성, 학업적 자기효능감에는 차이가 있었다. Chun과 Song의 연구[21]에서 이들 변수의 차이집단의 경우 성취목표지향성의 차이를 나타내어 이들 수준에 따른 학습지원 및 상담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Park[8]의 연구에서도 학업실패내성은 학업성취도와 직무성과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학업실패내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수행하는 능력이 높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므로 이는 졸업 후 직무성

과와도 연결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연구를 통하여 졸업 후 실패내성이 높은 간호학생들이 우수한 직무성과를 나타내는데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학업실패내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학업실패내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내어 학업실패내성과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상관관계($r=.291, p<.001$)를 나타낸 Park의 연구[13]와 유사하다. Chun과 Song[21]이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과제난이도선호영역이 가장 낮은 연구결과와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Kim[9]의 연구결과 및 Joo, Kim과 Cho[20]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실패내성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고한 Lee와 Lee[2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각 하위영역에서는 학업실패내성의 경우 행동하위영역만이 그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경우 과제선호와 자기조절 효능감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업실패내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학업실패내성은 제외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만이 7.5%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연구[23]도 있지만 대부분의 논문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18,19,24]과 유사하다. 대학생들의 자아효능감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연구에서 자아효능감이 학업성취도를 18.7%의 설명력을 나타낸 Kim[9]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지능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추가하였을 때 설명 분산이 3.5%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한 Kim과 Cho의 연구결과[25]도 고려할 때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인다면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교수학습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학업실패내성은 주요 변인에서 제외되었다.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경로로 학업실패내성($r=.14, t=2.75, p<.05$)으로 나타난 Park[8]의 연구와 차이가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수행에 상당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Kim과 Joo의 연구결과[7]와도 차이가 있다.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학업실패내성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여 비교하기에는 제한이 있지만 학업실패내성은 개인의 발달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안정적인 개인차 변인이라면[5] 대학생활동안 변화가 가능한 변인인지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학업에서의 실패가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낮아진 자아존중감으로 실패내성이 낮아지고, 다시금 만나게 되는 실패를 극복하기 어려워져 다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악순환을 경험할 수 있다[17].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의 주요 예측요인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않았으나 실패내성과 학업성취도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난 결과를 볼 때, 학습자들에게 실패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심리적 저항현상을 활용하여 학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학생들에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의 학업적 실패경험 후 감정적 반응을 어떻게 긍정적 방향을 개선할지, 그리고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긍정적 행동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학업실패내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후속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 취업 후 직무성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실패내성[8]을 대학생활 동안 좀 더 긍정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이나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연구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 실패내성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예측변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주요 독립변수의 하위영역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학업실패내성의 하위영역인 행동영역이 학업성취도에 8.0%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Kim과 Joo[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들도 학업실패내성의 하위영역인 행동이 학업성취도를 가장 잘 예언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우수학생들의 행동영역이 평균점수에서도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 지도에 대한 교과와 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에서는 자기조절 효능감이 15.4%로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내었는데 Kim[9]의 연구에서도 학업적 효능감 하위영역에서 자기조절 효능감이 13.2%로 가장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 유사하다. 특히 졸업 후 입장에서 대인관계를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게 되는 간호대학생들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간호자기관찰, 자기

판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조절적 기제와 관련된 학생들의 자기조절 효능감[26]을 높이기 위한 전략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전공이론 교과목 및 실습교과목을 가지고 있는 간호학의 특성상 간호대학생의 전반적 학업적 상황에서 학습자의 학문적 수행과 성취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구체화된 학업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의 개발 및 타당성 검증연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를 직전학기 학점을 사용하였는데 대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학점으로 정의하고 활용한 선행연구[8,21,24]도 있으나 학점 대신 학습 성과라는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간호교육인 증평가와 관련하여 간호학생들의 학점 보다는 간호학사 학위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 성과에 대한 간호교육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학업성취도 대신 학습 성과를 활용하여 이들 주요 변수 간의 영향에 대한 반복연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자가 보고한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학업실패내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므로 연구결과 해석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대학교를 편의 표집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며 자가보고형 자료를 이용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확대 적용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실패내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학업실패내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시도되었다. 학업실패내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도와 긍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학업실패내성은 제외되었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 만이 7.5%($F=16.905, p<.001$)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주요 변수의 하위영역이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분석한 결과, 학업실패내성의 행동 하위영역이 학업성취도에 8.0%의 설명력을 나타내었고($F=18.203, p<.001$),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자기조절 효능감 하위영역이 15.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F=36.907, p<.001$).

따라서, 학업실패내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교육현장에서의 학업성취도에서 나아가 임상현장에서 직무성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규명된다면 간호대학에서 역할은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시사하는 바일 것이다. 취업 후에 직무성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대학생활 동안 임상 실습현장에서 또는 교육현장에서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실패내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나가는 프로그램 개발 및 교과외 활동이나 상담 및 지도를 통한 구체적 향상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연구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으나 여러 변수간의 복합적 인과관계를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한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학업실패내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대학생들이 취업후 우수한 직무성공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J. A. Park, E. K. Lee, "Influence of Ego- 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7, No.3, pp.267-276, 2011.
DOI: <http://dx.doi.org/10.1111/jkana.2011.17.3.267>
- [2] S. Y. Kim, H. I. Cho,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Basic Need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Adjustment of Teachers'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10, No. 2, pp.307-328, 2013.
- [3] H. Y. Gao, "The differences in academic burnout and academic failure tolerance between motivation type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13, No. 1, pp.126-147, 2012.
- [4]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Available From: http://www.kabon.or.kr/HyAdmin/view.php?&bbs_id=kab01&page=&doc_num=446, (accessed Oct., 2, 2014).
- [5] A. Kim, "Development of standardized student motivation scales",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Vol. 15, No. 1, pp.157-184, 2002.
- [6] A. Kim, M. M. Clifford, "Goal Source, goal difficulty, and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s as predictors of response to failur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58, pp.28-43, 1988.
DOI: <http://dx.doi.org/10.1111/j.2044-8279.1988.tb00876.x>
- [7] A. Kim, J. Joo, "Relationships among learned helplessness, failure tolerance, and academic achievement", *Ewh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29, pp.157-176, 1999.
- [8] K. H. Park, "The Influence of learned helplessness and failure tolerance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Job performance", *The knowledg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Vol. 9, No. 1, pp.61-76, 2008.
- [9]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Korean Education Inquiry*, Vol. 19, pp.101-115, 2004.
- [10] A. Kim, I. Park,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39, No. 1, pp.95-123, 2001.
- [11]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 84, No. 2, pp.191-215, 1977.
DOI: <http://dx.doi.org/10.1037/0033-295X.84.2.191>
- [12] A. Kim, "A study on the academic failure-tolerance and its correlat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1, No. 2, pp.1-19, 1997.
- [13] K. Park, "The Influence of Learned Helplessness and Failure Tolerance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Job Performance",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Vol. 9, No. 1, pp.61-76, 2008.
- [14] J. Hwa, Y. H. Kim, D. Y. Whang, H. Y. Jeong, E. D. Kim, "An analysis of learner's locus of control and self-efficacy influencing the academic failure-tolerance",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6, No. 1, pp.47-65, 2009.
- [15] J. I. Lee, J. H.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Essential Skills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2, No. 2, pp.227-246, 2012.
- [16]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39, pp.175-191, 2007.
DOI: <http://dx.doi.org/10.3758/BF03193146>
- [17] M. H. Hwang, S. Y. Jang, S. K. Yoo, "The failure-tolerance, self-esteem, and attachment of the Korean Academically talented adolescent",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1, No. 4,

pp.1029-1046, 2007.

- [18] Y. B. Kim, "Top ranked school students' coping of their academic underachievements and failure tolera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8. No. 1, pp.31-47, 2011.
- [19] A. Y. Wang, M. H. Newlin, "Predictors of Web-Student Performance: the role of self- efficacy and reasons for taking an on-line clas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18, No. 2, pp.151 - 163, 2002.
DOI: [http://dx.doi.org/10.1016/S0747-5632\(01\)00042-5](http://dx.doi.org/10.1016/S0747-5632(01)00042-5)
- [20] Y. J. Joo, N. Y. Kim, H. K. Cho,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online task value and self-regulated learning, and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in cyber educ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Vol. 14, No. 3, pp.115-135, 2008.
- [21] K. Chun, Y. Song, "Th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differences of medical students according to the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9, No. 3, pp.183-21, 2011.
- [22] Y. Lee, S. Lee, "An Analysis of Learner's Locus of control and Self-efficacy Influencing the Academic Failure-tolerance", *The Korean Journal of Thinking & Problem Solving*, Vol. 49, No. 3, pp.183-21, 2011.
- [23] J. Ha, Y. H. Kim, D. Y. Whang, H. Y. Chung, E. D. Kim, "A study on the longitudin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6, No. 1, pp.47-65, 2009.
- [24] Y. J. Joo, N. Y. Kim, H. G. Cho, "Test development and verifying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for measuring a effectiveness of e-learning course in cyber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Vol. 12, No. 1, pp.109-120, 2008.
- [25] A. Kim, Y. Cho, "Relative Potency of Intelligence and Motivation Variables in Predicting Academic Achievement",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Vol. 15, No. 4, pp.121-138, 2001.
- [26] J. Kim, "The academic self-esteem and academic failure-tolerance of students with and without learning disabilities", *The Korea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Vol. 7, No. 2, pp.81-95, 2010.

정수경(Su Kyoung Chung)

[정회원]



- 1994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0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0년 9월 ~ 현재 :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안전문화